

발가벗고 만나는 진짜 나와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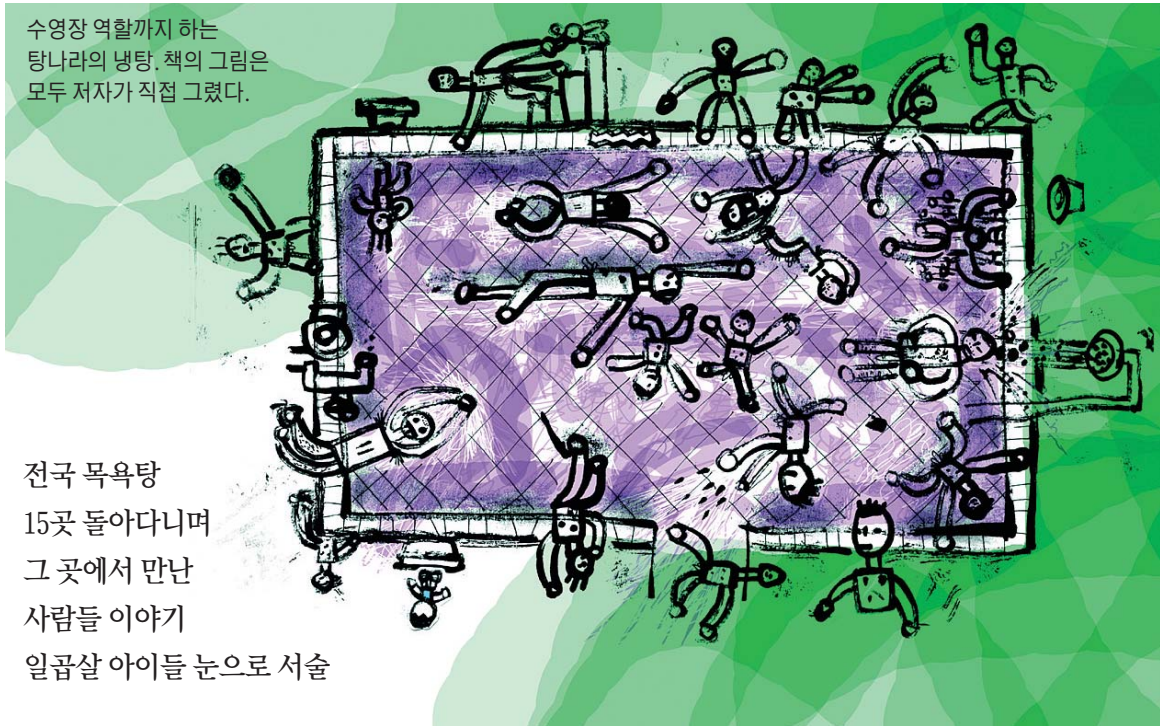
탕나라 사람들
신병근 지음
시대의 창/1만2800원

권혁범 기자 bear@kookje.co.kr

‘세상과 나, 우리 모두는 마음의 때가 가득한 존재였다. 발가벗음,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인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지금, 참 편하고 시원하다.’

대중목욕탕은 많은 것들을 추억하게 한다. 유년기,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와 유일하게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 목욕탕이었다. 아버지 기분이 좋은 날이면 허름한 냉장고 속 요구르트나 딸기우유도 맛볼 수 있었다. 간혹 ‘부득이하게’ 어머니를 따라 목욕탕에 갈 때면, 이물질 여자 아이도 만났다. 목욕탕은 발가벗은 모든 사람이 같은 모습으로 때를 미는 평등한 공간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목욕탕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많다. 안개 샤워기 거울 비누 샴푸 사누나 땀 오그림 때수건 맥반석 냉장고 운동기구 변분 스킨 로션 체중계 노란장판 모래시계 곰팡이 습기 손톱깎이 대표소 목욕의자... 끝이 없다. 발목에 찬 열쇠와 고무줄, 먼지 낀 선풍기, 주글주글해진 피부, 구두 닳는 아저씨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수영장 역할까지 하는 탕나라의 냉탕, 책의 그림은 모두 저자가 직접 그렸다.

전국 목욕탕 15곳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일곱살 아이들 눈으로 서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장면들을 목욕탕과 연관시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목욕탕은 대중적이고 서민들의 생활과 닿아 있다. 목욕탕은 몸의 때를 벗겨주는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목욕탕을 나서면서 시원함 또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그고 생각에 젖거나, 사우나에서 수다를 떨면서 온갖 격정을 잊는다. 발가벗고 대하는 사람들은 금세 나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가슴속이 답답할 때면 목욕탕을 찾는다.

탕나라 사람들은 목욕탕의 이 같은 기능을 간파하고, 목욕탕에서 우리네 인생을 본다. 저자는 ‘나’와 ‘세상’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국 12개 도시, 15곳의 목욕탕을 투어했다. 그리고 아무런 편견과 차별도 없이

발가벗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책의 주인공은 일곱 살 동갑내기 뽕글이와 뽕희다. 둘은 ‘찌찌도, 꼬추도, 똥고도 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탕나라를 여행한다. ‘꼬추가 큰 아저씨들은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고, ‘뽕에 뽕물 그림을 그린 아저씨 주위에 사람이 없는’ 모습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다. 찬물에서 수영도 하고, ‘요물레오마사지탕’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한다. 자식 자랑, 남편 혐이 답답할 때면 목욕탕을 찾는다.

탕나라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우리네 인생을 본다. 저자는 ‘나’와 ‘세상’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국 12개 도시, 15곳의 목욕탕을 투어했다. 그리고 아무런 편견과 차별도 없이

들은 도대체 왜 때를 미는 걸까? 뽕희가 답한다. “아프지만 시원하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 아마도 지우개로 지우는 것처럼 때를 밀면서 뽕가 잘못 쓴 흔적들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가봐.”

어렵듯이 해답을 찾아가길 뽕글이는 실수로 ‘마음의 때바다’에 빠진다. 그동안 봤던 때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징그러운 때들이 널친다. 가까스로 뽕구멍으로 탈출한 뽕글이는 손과 발이 주글주글해진 뽕희에게 말한다. “아까는 그렇게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왠지 시원해. 시원하다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책은 탕나라를 돌면서 발가벗겨진 ‘나’와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사로잡는 기발한 그림들은 일품이다.

어린이 책동산

이야기를 담아두지마

이야기는 이야기(박경만 원작·안미란 엮음·오승민 그림)
“이야기는 이야기할 것이지 넣어 둘 것은 아니야!” 이야기의 힘과 욕심, 그리고 나눔에 대해 깨달음을 준다. 신랑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혼자만 알았다고 꼭꼭 숨겨놓는다. 이 때문에 ‘이야기들’은 답답한 주머니 속에 갇히게 된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작은 것이라도 다른 이를 위해 쓰면 가치가 높아진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사파리/7-10세/9800원>

고운 별들의 이야기

어린왕자의 별자리 여행(김상구 지음)
별자리 관측방법부터 별자리에 담긴 동서양의 신화와 전설까지, 밤하늘이 들려주는 별들의 이야기. 구체적인 관측 날짜와 시간을 찾는 법을 상세히 제시했다. 우리나라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53개 별자리를 계절별로 집합이 별자리, 밝은 별자리, 아름다운 별자리로 나눠 놓았다. 아름다운 별자리 사진도 수록했다. <한솔/1만8000원>

새로운 눈으로 사물을 봐

뽕글이는 속상해(한상순 동시·임수진 그림)
난/입이 있어도/누굴 홍보지 않아/누가 뭐래도/아무 때나 입을 열지 않지/꼭 다른 입/뽕글이에게 날리면/그 때/내 입은 번쩍 열리게 돼/그리고 답석 문 뽕글이/함부로 뽕지 않지-‘뽕글이’ 전문.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참신한 발상으로 가득한 동시집이다. 단순하지만 깊이와 재미가 있다. <푸른책들/초등 전학년/8800원>

새 책

문학·교양

▶ 버드나무의 네 가지 삶(산사 지음·이상해 옮김)=‘여황 축전무후’ 작가의 신작. 중국에서 죽음과 재탄생을 상징하는 버드나무를 모티브로 내편의 작품이 이어져 전개된다. 격변기 두 남녀의 엇갈린 운명과 사랑이 내용. <현대문학·1만 원>

▶ 화이트 타이거(아라빈드 아디가 지음·권기대 옮김)=꿈과 영혼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 이러한 철학적 명제가 비친한 계급인 주인공의 거칠고 잔혹한 인연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지난해 부커상을 수상했다. <베가북스·1만2000원>

인문·학술

▶ 링컨의 우울증(조수아 율프 생크 지음·이종인 옮김)=우울증과 개인적 비극을 인내하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거듭난 링컨의 삶을 조명한다. 링컨은 강인한 성격으로 우울증을 극복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랜덤하우스코리아·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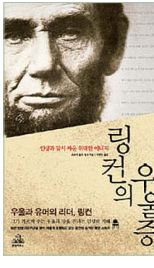
▶ 오르가슴의 과학(배리 코미사록 지음·오르가슴연구회 옮김)=미국 존스홉킨스대 출판부가 발행한 책으로 오르가슴이라는 성적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노화와 오르가슴의 관계, 동성애 등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어드북스·2만5000원>

경제·실용

▶ 워밍업 경제학(비난트 폰 페터스 도르프, 유봉석 지음·정인회 옮김)=양국의 경제기사를 다룬 저자들이 경제학의 핵심을 모아서 서술하고 있다. 생생한 사례를 통해 경제현상을 설명, 경제학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온다. <위즈덤하우스·1만2000원>

▶ 1인 기업 성공시대(백기락 지음)=1인 기업가인 저자가 1인 기업 창업과 경영법을 소개하고 있다. 1인 기업이 경제위기 세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며 1인 기업의 개념과 국내 현황, 창업 준비과정 등을 다룬다. <크레덴지식서비스·1만3000원>

▶ 절대공정으로 산다(이재준 지음)=절대공정의 힘으로 희망을 창출해낸 명사들의 이야기가 수록됐다. 김구 선생과 고종 학력으로 BMW코리아 사장이 된 김효준, 2군에서 축구 대표 골잡이가 된 이근호 등의 사연이 소개된다. <리더북스·1만2000원>



▶ 모자(토마스 베른하르트 지음·김현성 옮김)=올해 작고 20주기를 맞아 독일어권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주요 단편을 묶었다. 1967년작 ‘단편집’에 수록된 7편과 1971년작 ‘슈틸프스의 미들랜드’에 수록된 3편이 실렸다. <문학과지성사·7000원>

▶ 코엘렌트 사건기록부 1.2(신원민 지음)=판타지 요소를 가미한 독특한 추리소설. 외딴 마을 페일 포레스트 빌리지를 배경으로 비상한 두뇌를 지닌 코엘렌트가 희대의 연쇄살인마를 쫓는 과정을 그렸다. <중앙북스·각 권 8500원>

▶ 통찰력 사전-사마천의 생각수첩(김원중 지음)=‘사기열전’ ‘사기본기’ ‘사기세가’ 세 권의 어록을 추렸다. 쓰는 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두주는 아첨했지만 말을 적게 함으로써 무겁게 보였다’ 등이 수록됐다. <글항아리·1만5000원>

▶ 약한 건축(구마 겐코 지음·임태희 옮김)=건축 에세이. 저자는 ‘케인스적 대규모 토목공사 정책’과 ‘스타 건축가들의 자기복제로 괴물덩어리가 된 건축에 대해 비판하며, 건축은 ‘관객’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자인하우스·2만 원>

▶ 산사의 숲-침묵으로 노래하다(김재일 지음)=108 사찰 생태여행-산사의 숲 두 번째 시리즈. 저자는 봄을 기다리며 침묵의 소리를 들으며 겨울 산사를 떠난다. 연주문장사 등 전국 10여 곳의 사찰기행문. <시정사·1만7000원>

▶ 걷는 것이 쉬는 것이다(글·사진 김산환)=임실 삼진강, 완도 청산도, 제주 올레, 부안 변산, 평창 대관령, 문경새재 등 전국 23곳의 ‘옛길’을 여행한다. 해당 지역의 지도와 먹을거리, 볼거리, 숙박시설 등도 상세히 안내한다. <실천문학사·1만4900원>

▶ 함께 쓰는 출판마케팅(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엮음)=격주간 출판전문지 ‘기획회의’의 창간 10주년을 기념하는 책. 그동안 잡지에 실렸던 출판마케팅 관련 글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1만2000원>



과학꿈나무의 후원자
R&D 사업의 동반자

통합검색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검색

"기술경영으로 미래를 개척한다"

CTO와의 만남

(최고기술경영자)



216쪽 가격 10,000원

**부산에서 기업을 일군
이공계 출신 및 제조업 경영자의 성공사례**

- 이공계 진학자들의 역할 모델
- 창업 준비자들에게 방향제시
- 기업경영 위해 '상경계 진학' 고정관념 타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21 국제문화센터 8층
부산과학기술협의회 TEL.(051)501-3159~60 www.fbost.org

우주, 상상을 기다립니다!

2009 세계 전문의 예

가자! **FUN & FUN**
일요 과학관

부산지역 각 과학관에서
매주 펼쳐지는
신나는 과학체험



<4월 프로그램>

장소	프로그램	시간 (매주 일요일)
기장도서관	과학선생님의 비밀실험	14:00, 15:00(2회)
	동보기 과학관	11:00(1회)
부산시어린이회관	다박사의 변신	13:00, 14:00(2회)
	동보기 과학관	13:30, 14:30(2회)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아슬아슬 괴닥이	14:00, 15:00(2회)
	나는초보애니작가	13:00, 14:00(2회)
수산과학관	전기찾는 반딧불이	2:45 토요일(4:00, 5:00(2회))

* 동보기 과학관은 과학문화해설사가 스코틀랜드 전사로 해설을 지도하는 것이며, 상기 내용은 국가별 홈페이지 확인 및 해당기관 사전예약전화 및 인터넷, 참가비용 무료
* 4/18(토)~19(일)는 제8회 부산과학축전(BEXCO) 관계로 없니다.